



여러분의 몫입니다.

일상적인 태도와 생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제12차 세계감리교 여성연합회(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and Uniting Church Women) 대회가 지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해가 지면 꽤 쌀쌀해졌고, 일부 여성 참가자들은 해가 지는 저녁식사 시간 전에 스카프와 스웨터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곳의 저녁식사 장소에 들어서면 반기는 인사와 따스한 환대, 인원확인 절차가 참석자들을 맞아 주었고, 풍성한 음식과 새롭고 경이로운 대화 속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감리교 여성연합회의 5차년 대회에는 전세계의 지역 선교사, 장학금 수혜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내셔널보드 멤버, 그리고 여성국 직원 등이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석한 미 전역의 다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을 만나게 되어 특히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식사시간과 회의장소에서 처음 만났지만 활력이 넘쳐났던 수 많은 여성 참가자 그룹 중의 하나였습니다. 카리브 지역과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대규모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영어가 회의의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본회의장에서만 한국어와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의 통역이 제공되었습니다. 결국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단지 몇개의 단어와 몸짓, 많은 미소가 대화의 주요 수단이 되었고, 통역자를 찾는 모습들도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들은 흥미로운 이력의 연사들에 대한 소개,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도전을 주는 성경공부, 혹은 멋진 노래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식적인 프로그램들의 내용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기간 동안 우리와 연관된 여성들과 기관들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과 감성의

틀을 만들어준 것들은 공식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계획에 없었던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였습니다

저는 내년 여름에 있을 선교학교를 위한 빈곤에 대한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미국 전체 인구 6명 가운데 1명은 빈곤층이며, 특히 흑인 가구와 히스패닉 가구에서는 4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이라는 미국 인구통계국의 발표를 보면서 줄곧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중 일부와 테이블에 함께 앉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전략을 나누고, 이미 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배우고, 사실과 수치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미소와 몸짓의 결속을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의 선교 파트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까요? 이 나라에서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는 노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까지의 일상적인 태도와 생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공부와 관계 속에서 일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들을 찾고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세계감리교 여성연합회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여성들간의 관계처럼, 우리는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또다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열려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장애들을 넘어,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들의 수정과 보완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를 보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고, 할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 보고 듣고 있지만, 보다 참되고 올바르게 보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슨